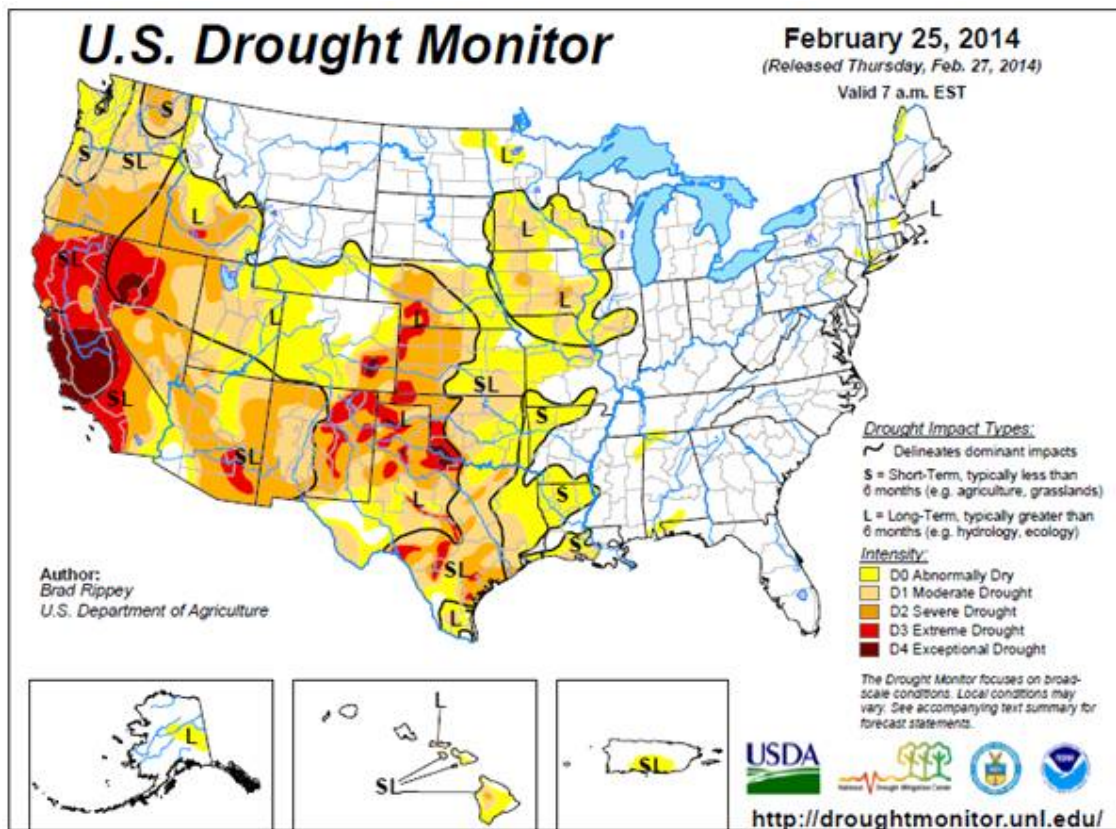


3월 5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1, No. 9)

□ 미국 기후 현황(02/23~03/01)



캘리포니아 지역을 지나간 폭풍으로 해안지역의 가뭄을 완화시키는 강우량을 제공하였고 Sierra Nevada 지역에는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 캘리포니아 농업 지역에 내린 비는 관개 요구와 방목장과 겨울 곡물들의 가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었다. 그러나 봄과 여름의 강수량 전망은 조금 향상된 수준이다. 서부 지역의 경우 폭풍우 날씨를 경험한 것으로 인해 중부 Arizona 지역은 최대 강수량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한편, 물 공급 전망은 서부 북부지역의 경우 향상될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지역의 경우, 걸프연안 지역에 한정해 폭우가 내렸으며, 총 강수량은 1~3인치 수준이었다. 3월 초 늦은 겨울 폭풍이 중부 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많은 양의 눈과 진눈깨비들이 대평원, 중서부 하단, 중남부 지역에 내렸다. Montana에서 Wisconsin 지역의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20°F 수준이었다. 북부 록키산맥 지역과 북서부 지역의 경우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어 추운 날씨였으나, 서부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온난하며 비가 내리는 날씨가 지속되었다. 서부 중산간 지역의 주간 평

균 기온은 10°F 정도로 평년대비 높은 수준으로 관측되었다.

□ 농업 현황 요약(02/24~03/02)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전국에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만 주간 총 강수량이 4인치 이상을 기록한 곳이 있었다. 동부지역의 경우 기온은 평년대비 낮은 수준이었으며, 록키산맥의 서부 지역은 평년대비 더욱 따뜻한 기온이 나타난 것으로 관측되었다. 북부 대평야 지대와 북부 콘벨트 지역은 평년보다 15°F이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 기후 현황(02/23~03/01)

- 유럽: 서부유럽에서는 불안정한 날씨가 계속되었으며, 동부 유럽의 농업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온난한 날씨가 이어졌다. 대서양에서 기인한 폭풍우는 아일랜드와 서부 영국(3-40 mm), 프랑스 (3-40 mm), 스페인(4-20 mm)지역에 비를 발생시켰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겨울 작물의 녹화에 충분할 만큼의 적당량의 토양 수분을 저장할 수 있었으며, 스페인에서는 밀과 보리의 생육 상황을 좋음에서 매우 좋음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천천히 이동하는 지중해 폭풍 전선의 영향으로 이탈리아에 비와 산설(5~50mm)이 내렸고, 가을밀의 충분한 토양 수분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였다. 또한, 산악지역에 눈이 쌓이게 되었으며, 여름 곡물에 요구되는 관개 저장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반대로 독일, 폴란드, 발칸반도와 같은 지역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지배적이었으며, 다뉴브 강 유역의 북부지역과 서부지역에서는 소량 또는 적당한 강수량(2~13mm)이 관측되었다. 중부와 동부 유럽의 기온은 평균 3~7°C로 나타나 평년보다 높았다. 이로 인해 서부 폴란드에서 남동부 유럽 지역에서는 겨울 작물의 휴면기가 평년대비 1개월 정도 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 구소련(서부): 계절에 맞지 않는 온난한 날씨가 계속되었으며, 국지적이지만 대체로 소량의 비가 내렸다. 한 주간 평균 기온은 3~6°C로 평년대비 높은 수준이었으며, 남부 러시아에서 겨울 작물의 추가적인 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주말에는 러시아 불가 지역,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남서부 러시아에 한정되어 눈이 내렸다. 낮 최고기온은 러시아 남부의 대다수 곡창지대에서 10°C를 상회하였으며, 가장 따뜻한 지역에서는 가을밀의 휴면기가 완화되었다. 강수량(비로 내린)은 10mm 미만이었으며, 대다수 곡창지대에서는 2mm 미만인 곳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 호주: 지난 3개월간 내린 강수량은 평년대비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름작물의 수확량 전망이 감소되었으며 면화에 대한 관개 요구도 지속되었다. 평년보다 더욱 건조한 날씨로 인해 축적된 효과는 건조한 토양에서 자라는 작물의 생육을 가속화시켰으며, 많은 지역에서 이른 수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주, 남부 Queensland와 북부 New South Wales 지역에서는 여름작물의 성숙도가 높아졌고 조기 수확에 박차를 가하였다. 남부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내린 비(5~50mm, 국지적으로 75mm 이상)는 중부

New South Wales 지역의 여름작물의 건조작업을 지연시켰으며, 미숙한 작물의 잠재 생산량을 향상시키기에는 너무 늦게 비가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동부 호주의 기온은 일반적으로 계절에 적합하였으며, 평년대비 평균 약 1°C인 것으로 나타났다.

- 아르헨티나: 중부 아르헨티나 지역에서는 선호되는 건조한 날씨가 지배적이었지만 북부 지역은 습하고 비가 내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국지적으로 폭우가 내린 몇 주 후, Buenos Aires와 La Pampa, Cordoba, Santa Fe, Entre Rios와 같은 지역에서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다. Buenos Aires 북부 대다수 지역에서 건조한 날씨는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여름 곡물과 유채가 정상적인 생육을 하기에 너무도 건조한 날씨로 인해, 남서부 Buenos Aires의 농업지역에서는 추가적인 비가 내린 것이 더욱 환대를 받을 수 있었다. 반대로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렸으며, 주요 농업 생산지역의 강수량은 25~100mm를 기록하였다. 짧은 비가 내린 후 다시 폭우(국지적으로 100 mm를 초과)가 파라나 강 중부지역에 내렸다. 북부 지역의 강수량은 국지적으로 여름 곡물, 유채, 면화의 생육을 위해 필요한 수분을 과도하게 유지시켜 주기도 하였다. 주간 평균 기온은 2~4°C로 평년대비 낮은 수준이었으며, 낮 최고기온은 20°C 중반이었고, 전통적으로 서늘한 남동부 Buenos Aires 지역의 경우는 40°C에 달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2월 27일 해바라기 수확은 현재까지 28% 진행되었으나, 전년 동기에는 40%가 이루어졌다. 또한, Buenos Aires에서 수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완료).
- 브라질: 브라질 남부 옥수수, 대두, 사탕수수 재배지역에서는 유익한 비가 내렸지만 적절하지 않은 건조한 날씨가 커피생산 지역에 대두되었다. 총 강수량은 25~100mm(국지적으로 더 높음)로 서부 Sao Paulo와 Mato Grosso do Sul 지역에서는 산재하여 내리던 비가 몇 주간 지속되어 미성숙한 여름작물의 성장에 필요한 토양 수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었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기온은(낮 최고 기온은 20°C 후반에서 30°C 초반) 작물의 수분 요구와 증발률을 낮추었고, 표토층의 수분을 재충전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북부에서 중서부, 북서부 내륙 지역(Mato Grosso, Goias, Tocantins, 서부 Bahia)으로 비슷한 강수량이 확장되어 내렸지만, 계절상 더욱 더운 날씨는(낮 최고 기온이 30°C 중·후반에 달함) 작물의 높은 수분 요구 함량을 유지하게 하였다. Mato Grosso의 경우에는, 비가 내리는 날씨는 대두 수확과 2차 파종된 옥수수(safrinha) 파종에 적합하지 않았다. 남부와 중부 브라질 지역의 비가 내리는 날씨와는 반대로, 건조한 날씨는 동부 지역을 지배하였으며, 이같이 건조한 날씨는 동부 Sao Paulo에서 브라질의 북동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다. 건조한 지역은 남동부 커피벨트(남부 Minas Gerais와 Espirito Santo) 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1월 말 이래로 평년보다 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이 지역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3°C를 나타냈으며, 낮 최고 기온은 주말에 소나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30°C 초·중반을 기록하였다.